

글을 써라, 창의성이 열린다

서울대가 최근 처음으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평가를 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을 제공해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글쓰기를 사람들은 그저 글을 쓰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

196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피터 도히터 박사는 노벨상을 받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독서 경험과 글쓰기능력을 강조했다. 과학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글을 잘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을 잘 쓰지 못한다면 과학자가 연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생각도 명확하고 연구도 잘한다고 말했다.

글쓰기는 첫째,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지적인 도구이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생각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모든 학습에서 글쓰기를 사용한다.

미국 쪽 통계에 의하면 대학 생활에서 자기표현의 60~70%가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리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논문 등 학습에서 글쓰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뜻이다.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글로 정확히 발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좋은 글은 좋은 생각을 대변한다.

둘째, 학생들의 지적 구성력을 향상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준다. 글쓰기의 기능 중 하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고를 정리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란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매우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이다. 글쓰기는 이런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모아서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낸다. 복잡한 생각도 글을 써서 정리하면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뀐다.

대학 글쓰기 교육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교는 1872년부터 신입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업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논증적 글쓰기'라는 과목명으로 전문적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15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글쓰기에 학생들이 접근하도록 돕고 있다. 학생들은 전공 분야별로도 전문지식과 함께 논리적 사고와 표현 기술을 배운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써내는 글이 무려 종이 무게 50kg을 차지한다고 한다.

하버드대학교가 4년 동안 글쓰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줄 아는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상대의 입장까지 아우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는 OECD가 대학에서 기본으로 배워야 할 핵심능력으로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버드의 교육철학은 “쓰기와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좋은 생각에는 좋은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정책을 구현한다.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의 글쓰기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주장이나 견해가 옳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학술적 글쓰기뿐 만이 아니라 대학의 경우 실용적 글쓰기도 요구된다. 대학과 기업과 사회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실용적 글쓰기 또한 대학의 글쓰기에서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글쓰기는 결코 학점을 채우려는 교양과목으로 치부되기보다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는 중심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대학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교육목표를 공유해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읽기 능력’보다는 기계적인 ‘글쓰기 능력’ 향상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둘째, 글쓰기과목과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글쓰기 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글쓰기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읽기 능력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글쓰기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전체적인 차원에서 ‘독서클럽’ 프로그램이 유용하다. 체계적인 독서클럽 교육과정에 따라 독서클럽을 진행할 때 참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두 번째 글쓰기 교육과 전공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계열별 글쓰기를 도입하는 것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글을 잘 쓰기 위한 비판적 사고의 부족

우리는 흔히 ‘비판’과 ‘비난’을 혼동해서 쓴다. 비판적 사고법은 누구를 흉잡으려는 생각을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문제를 이리저리 따져서 반성적·성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비판력이 ‘창조력’ 또는 ‘창의력’과 맞닿아 있는 것은, 비판력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정신 활동인 동시에 하나의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필수조건에 해당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는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더욱 잘 이해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무척 절실한 능력이다. 특히 대학입시를 위한 통합논술이 강화되고 취업 때 논술시험을 보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늘어나는데도 논리적 글쓰기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법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는 부족하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글쓰기 훈련

글쓰기능력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이다. 미국 최초의 위대한 작가라 칭송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인쇄공 시절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 문장력을 높이기 위해,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한 훈련을 소개한다.

문장력을 높이기 위해 프랭클린은 필사를 했다.

그 순서는 ① 고른 글의 문장마다 연상할 수 있는 키워드를 노트에 적는다. ② 원래 문장이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며칠 기다린다. ③ 노트에 적어둔 키워드들만 보고 각 문장을 다시 쓰며 전체 글을 차례로 완성한다. ④ 원문과 비교해 틀렸거나 부족한 점을 고친다.

그는 좋은 글 한 편을 단순한 모방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프랭클린은 글의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펙테이터> 잡지를 교본으로 삼았다. 문장과 문장을 모두 해체해 본 뒤, 어떻게 논리적으로 밀도가 있는 구조를 짜는지 분석하고 훈련했다.

① 이번에는 문장별로 각각 낱장의 종이에 적는다. ② 낱장 종이들의 순서를 뒤섞는다. ③ 원래 글이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 ④ 그 종이들을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 순서대로 배열한다. ⑤ 이 순서에 따라 글을 써본다. ⑥ 원문과 비교해서 문장배열, 논리 구조에서 부족한 부분을 고친다.

프랭클린에게 가장 중요했던 글쓰기 비법은 바로 반복과 훈련이었다.

순위	학교명	점수
1위	옥스퍼드대(영국)	98.5
2위	스탠퍼드대(미국)	98.0
3위	매사추세츠 공대 (MIT)(미국)	97.9
4위	하버드대(미국)	97.8
5위	케임브리지대(영국)	97.5
...		
12위	칭화대(중국)	92.4
...		
14위	베이징대(중국)	91.8
...		
29위	도쿄대(일본)	83.1
...		
62위	서울대(대한민국)	73.4
...		
76위	연세대(대한민국)	70.4
...		
83위	카이스트(대한민국)	69.2

자료: 영국 대학평가 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

100여 년 전의 민족의 함성소리 들리는가

3.1운동은 민족의 비폭력 외침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하늘을 진동케 한 소리였습니다. 3·1 운동은 1년 가까이 계속되었는데, 대체로 3단계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제1단계는 민족대표 33인이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운동을 점화한 단계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은 당초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다가, 태화관에 모여 비폭력 독립선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민족대표들의 이러한 독립선언은 곧바로 거족적인 항일운동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제2단계는 청년, 학생, 교사 등 지식인이 주도한 만세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 단계입니다. 3월 1일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그 시각에, 탑골공원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집결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종로를 향해 시위에 들어갔으며,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했습니다. 3단계는 이날 서울뿐 아니라 나중에 농촌 지역까지 확대되어 농민운동으로 퍼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제 잔학한 수탈과 무단통치로 농민들이 놀랐던 울분도 폭발합니다. 일부가 돌맹이, 식칼 등으로 무장하고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우체국, 토지 회사, 친일 지주의 집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5월 말까지 세 달동안 전국 230개의 부군에서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500여 회의 만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공식 집계로도 7500여 명이 살해되고 4만 6000여 명이 붙잡혔으며 1만 6000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잔학한 고문과 태형으로 옥사했습니다. 이해 10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1만 8,000여 명이 구속되어 9289명이 보안법, 소요죄, 내란죄,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때 재판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농민이었습니다. 민족대표들은 최고 3년형을 받았다가 일본의 유화정책으로 대부분 형기 전에 석방되었던 것에 비하면 민초들의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1919년 3월 31일의 정주 시위에서는 28명이 사망하고 99명에 부상했으며, 4월1일의 천안 아오내 장터 시위에서는 20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월 15일에 화성군 제암리교회에서는 집단 학살로 28명이 사망했습니다. 무가나 죽창을 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만 자극한 실패한 운동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3.1운동의 결과 일본의 식민정책은 더욱 교활하게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겉으로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드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더욱 더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렬한 민족적 기도였다고 봅니다. 하늘을 향한 전 민족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전을 울렸습니다. 1차대전 종전후 전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이 크게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3.1운동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3·1운동은 전 세계의 식민지에게 거대한 신음의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이 파도는 세계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 사회에 식민 통치하의 한국이 처한 실상 알렸습

니다. 한민족 연합 전선 형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어 주체적 독립의지를 보였습니다. 물론 1919년 3.1운동 이후에도 1945년 독립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민족은 일제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주체적 역량이 없이 소동만 일으킨 것으로 비하해도 좋을까요? 여기서 독립운동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방해 속에서 전개된 것이고 이것이 선포된 것은 그 섭리적 타이밍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여, 기어코 자주 대한민국을 잉태할 위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속시킨 선열들의 '인내'를 배웁니다. 3.1운동으로 독립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신을 계승받아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이 전개됐고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 이제까지의 봉건국가와는 전혀 다른 독립 대한민국이 발아하고 있었습니다.

한일근대사 50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길은 걷게 된 결정적 요인은 종교에 대한 양국의 수용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무단통치 36년은 강렬한 초대교회의 내세주의 소망사상을 낳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영글어가는 현대 세계사속에서 대한민국이란 이 시대의 소명국을 탄생케 하기 위한 소죄사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한국인은 일원구조인데 반해, 일본인은 이원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본에서는 '신도와 불교의 혼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종교를 혼합하거나 절충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여러 종교를 믿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켜야 할 절대적인 '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국체(國體)'를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었습니다. 전근대사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가톨릭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으나 국체를 흔들 정도로 크게 성장하자 탄압에 나섰습니다. 유교 또한 국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고, 결코 통치 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에 밀려들어오던 19세기 중엽 이후 국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것이 전통종교인 신도와 천황제가 결합된 '천황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유교뿐 아니라 그 어떤 종교도 절충주의나 혼합주의는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와 유교, 유교와 동학, 천주교와 개신교를 동시에 믿거나 절충해서 받아들이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은 유교 가운데서도 송나라 때의 주희(1130-1200)가 주장한 주자학(성리학) 이외에는 전부 '사도(邪道)'로 정죄되었습니다. 명조의 왕수인(1472-1529)의 학설인 양명학은 조선시대 내내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주자학(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온갖 차별(적서차별, 남녀차별, 지역차별, 직업차별, 종교차별)에 기초한 주의였습니다. 이는 차별이나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 사민(四民, 사농공상)평등 사상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양명학자(하국 정제두, 1649-1736)를

이단으로 몰고 간 핵심 요인입니다.

개국을 강요당한 일본은 서구와 전쟁을 피하면서 국체를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도(道)'를 국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에게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지키고자 한 도가 있었습니다. 군사적 전력이 열세임을 알면서도 프랑스와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까지 쇠국을 고집한 것도 유교적 민본주의라는 도(道) 때문입니다. 그 '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까지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동양의 '유교'라는 종교를 외래종교인 서구 기독교로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한일합방)는 결론에 도달해야 가능했습니다. 마치 불교의 나라 고려가 유교의 나라 조선으로 교체되려면 불교 때문에 나라를 망했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개신교가 전해지기까지 조선은 '송유억불정책'으로 불교를 억압했고, 양명학도 이단으로 정죄했으며, 가톨릭도 탄압했으며(3대 교난), 동학(東學)도 서학(천주학)이라며 탄압했습니다. 유교의 깊은 폐해로 일제에 억압당하며 문화적으로 뒤질수 없었던 조선이 쇠국으로 봉쇄상태에서 서양조종을 앞세운 일제에 망한 것입니다.

이와 때 맞춰 마침내 구한말 개국과 더불어 기독교가 들어왔고, 조선인은 급속히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유교적 민본주의'의 나라가 '기독교적 신본주의' 나라로 교체됨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유교, 계급적 유교, 봉건적유교는 결코 기독교와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종말론적 소망),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포용의 논리, 그리고 만민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1만세운동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나라가 종언을 고한 사건입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유교인(또한 천주교인)은 단 한 명도 없고, 그 대신 개신교인이 절반에 가까운 16인(천도교 15인, 불교 2인)이었던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3.1절의 함성은 한국이 유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의 나라로 대체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태화관에서 발아하여 전국적인 농민운동으로 퍼진 것은 민족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30년의 고난의 행곡을 불러오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으로 민족 속의 복음을 정금처럼 제련하는 용광로의 점화소리였습니다. 이제 다시 민족의 기도소리로 이땅과 하늘을 채워야 합니다. 다시 거듭난 대한민국으로 시대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주여! 다시 3.1의 함성으로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수출이 살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수출은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면서 지난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다변화를 위한 전방위대책과 소비재수출비중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핵심전략산업의 수출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수출의 날'을 처음 제정한 뒤 우리 무역은 1988년 1천억, 2011년 1조 달러를 달성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수출은 2023년 1~9월 기준 8위에 오르며 세계 10대 수출국 안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규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술, 대상국, 품목 등 질적으로 고도화에 성공했다. 주력 품목은 IT 및 중화학 제품으로 변했으며, 문화콘텐츠까지 수출 영역을 넓혔다.

수출경쟁력으로 세계 1위 품목, 하이테크 비중 늘어

우리나라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은 제조강국 중 최고 수준으로, 지난 60년간 수출 산업은 R&D 중심의 고위기술 산업으로 고도화하였다. 2002년~2021년 하이테크 제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10.0%)은 동기간 총수출 연평균 증가율(7.5%)을 상회해 우리 수출을 견인하였다. 1964년 우리나라 수출국은 41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51개국으로 수출 대상국은 매우 증가했지만, 5대 수출국의 비중은 감소해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였다. 국가별로는 주요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올해(1~9월) 3.62%로 1991년(3.80%) 이후 최고치 기록하였다.

신규 유망 시장인 호주, 인도 등에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호주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2023년(1~8월) 2.78%로 2020년(1.41%)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2000년 1.54%에 불과했던 인도의 한국 점유율은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철강 수출이 늘어나면서 2023년 3.11%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하이테크 분야 수출

구분	2001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전자, 통신기기, 과학기기	207	(64.2)	1,696	(78.3)	(11.1)
컴퓨터 사무기기	75	(23.2)	162	(7.5)	(3.9)
하이테크 총합	322	(100.0)	2,167	(100.0)	(10.0)

주1 : 하이테크 품목 9개 중 수출 비중이 높은 3가지

주2 : 전자, 통신기기(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과학기기(반도체 장비, 과학기기), 컴퓨터 사무기기(컴퓨터, 복합기 등)

자료 : OECD, 한국무역협회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상승 한국 품목

구분	수입시장점유율		
	2017(A)	2022(B)	B-A
반도체	4.0	4.8	+0.8
석유제품	1.6	2.0	+0.4
석유화학	5.2	7.7	+2.5
자동차	7.1	11.0	+3.9
기계류	3.8	4.2	+0.4
가전	4.9	5.9	+1.0
자동차부품	6.5	7.5	+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새로운 품목으로 개척하는 수출 활로

팬데믹 이후부터 글로벌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며 전기차·배터리·양극재 등 전기동력화 품목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했다. 특히 올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3대 전기동력화 품목 수출은 2019년 대비 수출 비중이 3배 이상 상승하며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 수출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총 수출이 감소했을 때에도 콘텐츠 수출은 지속 성장하였다. 2021년 콘텐츠 수출은 주력 품목인 가전보다 수출액이 앞서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콘텐츠, 특히 K-pop 등 한류 콘텐츠 수출이 확대되며 서비스 수지 중 음향영상 수지는 2014년부터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품목	2013년	2022년	증감분	경쟁력 변화
선박	91.0	77.1	-13.9	악화
자동차	74.8	55.5	-19.3	악화
광학·정밀·의료기기	35.2	-10.9	-46.1	악화 (수출특화 → 수입특화)
반도체 등 전자기기	30.4	23.0	-7.4	악화
유기화학품	26.7	21.1	-5.6	악화
기계	11.1	3.3	-7.8	악화 (수입특화 심화)
석유 등 광물성연료	-53.9	-54.3	-0.4	악화
플라스틱	49.2	49.7	0.5	강화
철강 제품	13.5	23.7	10.2	강화
철강	4.5	19.5	15.0	강화

*무역특화지수 :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 지수가 0 이상이면 수출특화, 마이너스 값이면 수입특화 품목으로 분류.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높은 품목으로 평가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수입

우리나라는 자원과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해 수출하는 무역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8.4%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16.6%)과 독일(8.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국제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 원자재 수입의존도, 물가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터키,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한국 순으로 원자재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천연가스, 구리, 옥수수는 1위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가 30% 미만이나, 석탄(호주 54.0%), 소맥(미국 49.1%), 네온(중국 66.6%) 등은 단일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1만1,215개)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품목이 2,434개, 90% 이상인 품목은 1,279개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 주요 원자재 수입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에서 나프타(대러시아 전체 수입 비중 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9.9%) 등 에너지 수입이 전체 러시아 수입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한국 전체 수입의 러시아 비중으로는 나프타 23.4%(수입국가 기준 1위), 원유 6.4%(4위), 유연탄 16.3%(2위), 천연가스 6.7%(6위), 무연탄 40.8%(2위) 등이다.

팔라듐은 백금 계열로, 반도체 센서, 메모리에 사용되는 원자재이다. 러시아 팔라듐 수입국으로 1위는

러시아 수입 의존도 상위주요품목



미국(1.15톤), 2위는 이탈리아(0.4톤), 3위는 독일(0.174톤)이다. 한국은 4위로 2021년 기준 677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8대 주요 원자재 중국 의존도

품목명	'23.1~10월 수입통계		
	수입 1위국	수입액(천만)	의존도
음극재	인조흑연	중국 81	94.50%
	천연흑연	중국 70	97.70%
양극재	황산니켈	핀란드 76	69.30%
	NCM전구체	중국 2,552	97.00%
	수산화리튬	중국 4,267	78.80%
반도체 소재	형석	중국 6	49.40%
	무수불산	중국 65	96.10%
반도체 귀가스	네온	중국 13	81.30%
	크립톤	중국 4	43.20%
	크세논	중국 79	64.00%
희토류 영구자석	희토류 금속	중국 10	86.10%
	희토류 화합물	중국 28	79.30%
	희토류 영구자석	중국 365	86.40%
요소	차량용 요소	중국 115	90.30%
마그네슘	마그네슘괴	중국 56	99.40%
몰리브덴	몰리브덴 금속	중국 137	80.50%

22대 총선, 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22대 총선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금배지를 노리는 후보들과 각 정당은 앞으로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득표전을 펼칠 것이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내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내년 총선의 변수는?

2024년 국회의원선거(4월 10일)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겠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설 것이다. 총선 승부와 의석수에 따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주도권도 결정된다.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과반을 얻으려면 21대 총선 의석(당시 미래통합당 106석)보다 45석을 더 얻어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로 승리할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안정화될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22대 총선의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꼽는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후보의 득표는 일정 부분 '양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집권 여당 후보들이 지역별로 강세를 보였다. 중도층 표를 끌어오면서 핵심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양상이다. 지난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를 합쳐 단 103석만을 확보하며 민주당의 개헌선을 저지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비례대표까지 합쳐 183석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총선 일주일 전인 2020년 4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57%-부정평가 35%로 집계됐다.

선거구 소멸지역은?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2023년 1월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18명이다. 이 수치를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눈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가 인구 상하한선이다. 인구 상하한선은 지역구 인구 편차의 기준이다. 헌법재판소는 2대 1 이하로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차이는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하한선은 약 13만 5000여 명, 상한선은 27만여 명이다. 13만 5000명과 27만 명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다.

■ 선거제 3가지 유형의 장단점

	병립형 비례제	준연동형 비례제	권역별 비례제
내용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각각 (병립)하는 방식.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 마음에 드는 후보자에 1표, 비례 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별 투표에 1표 행사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비례로 보충).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라면 비례의석을 그만큼 적게 갖고 됨.	전국을 3~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선출. 당선자는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
장·단점	-간편·단순한 투표 체계 -소수정당의 원내 입성 어려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용이 -위성정당, 비례정당 난립	-지역주의 완화 -작능 대표성 약화
지시정당/세력	국민의힘, 민주당 친명주류	비명계 등 민주당 비주류 (위성정당 방지법 전제)	김진표 국회의원, 여야 일부 의원

내년 총선 60세 이상 유권자 30세 이하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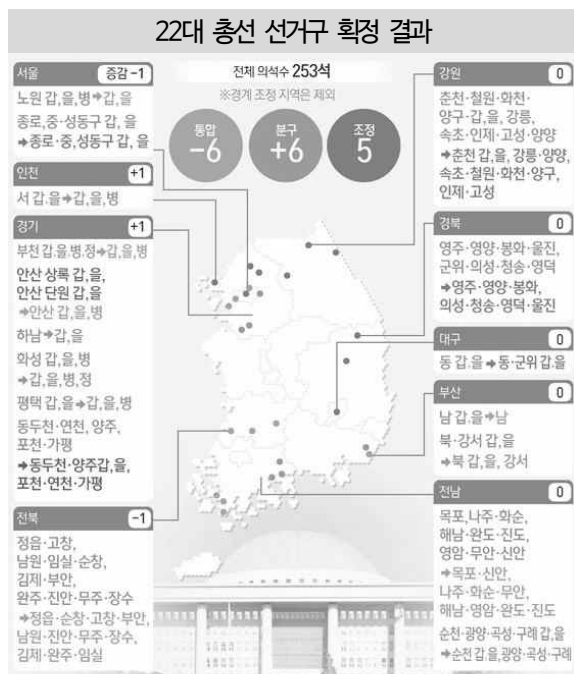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30세 이하를 넘어설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로, 노년층 표심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유권자는 1390만여 명으로, 18~39세(1373만여 명)보다 17만여 명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4050세대(1660만여 명)가 37.5%로 가장 많고, 이어 6070 세대 31.4%, 2030 세대 31.1% 순이다.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30세 이하 유권자 수를 앞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청년층을 앞지르게 되면서 노년층 표심이 이번 선거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유권자일수록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투표율이 높다. 노년층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 보수 정당에 유리할 것으로 해석이다. 다만 민주화 운동을 이끈 86세대(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가 60대에 접어들고 있어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I 기반 메시지로 표심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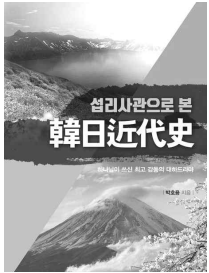
뿌리오의 'AI 문자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문안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다. 뿌리오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문자(SMS, LMS, MMS)를 대량 발송·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에 출시된 AI 문자서비스는 사용자가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면 챗GPT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최적화된 메시지를 생성한다. 선거 운동에서도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거 문안을 생성, 유권자들에게 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차이▶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지역 자치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며, 국회의원선거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일할 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투표로 선출된 자리의 임기도 다르고, 선거권 대상도 다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18세 이상의 지역 거주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는 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놀라운 섭리의 나라, 대한민국



섭리사관으로 본
한일근대사
저자: 박호용/
쿰란출판사

이 책은 일본의 복음화와 선교를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한일근대사 105년(1840~1945)의 역사와 함께 그 이전의 한민족과 일본인의 뿌리 역사를 추적, 정리했다. 특히 일본이 300년 동안 ‘굴기의 역사’를 이루어 간 반면, 조선이 선조 임금 이후 고종에 이르는 300년 동안 ‘망국의 역사’로 가는 모습을 섭리론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여기서 섭리사관이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복음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하비에르 선교사에 의해 가톨릭 선교(1549)가 시작되었는데, 조선과 비교하면 거의 250년이나 앞선다. 근대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전수 받으면서 서구 문명과 근대화에 접했다. 이 또한 조선보다 거의 250년이 앞선다.

이러한 일본이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톨릭 박해(1598년), 시마바라 봉기(1637~38)에 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톨릭 탄압으로 복음화는 거의 소멸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미국과의 통상에 따라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왔으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군국주의로 맞서면서 복음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반면에 근대화(문명화)는 메이지유신(1868)과 더불어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광범위하게 흡수하여 반세기 만에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문명화)를 이룩한 일

본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메이지유신은 복음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철저히 실패한 혁명이다. 일본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양 기독교(복음화)는 국민적 결속에 걸림돌로 여겨 철저히 경계했고, 그 대체물로 선택한 길이 천황제 이데올로기(천황교)였다. 승승장구하던 일본 제국주의는 태평양전쟁으로 파국을 맞았다.

반면에 한국은 근대화에 실패하여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했지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더욱이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만을 세운 것이 아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알렌)이 설립되었고(1885),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메리 스크랜튼), 배제학당(아펜젤러), 고아원 설립(언더우드), 장애인 교육기관(로제타 홀) 등 근대식 교육기관들이 줄지어 설립되었다.

신분 차별적인 종래의 교육과 달리 신분과 남녀 구분이 없는 평등교육과 개방형 민주 교육은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근대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 사업인 교통, 통신, 위생 등 다양한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근대화의 여명기를 열었다.

또한 당시 절대다수가 문맹이었던 시절에 선교사들은 한글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한글 교육과 아울러 한글을 복음의 언어로 채택하여 한글 성경을 편찬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한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독립협회로부터 3.1독립운동까지 기독교인과 기독교회가 행한 헌신과 희생은 민족계몽에 큰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한국이 경제대국만이 아니라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저변에는 선교사들과 기독교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세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MY JESUS LOVE STORY

“대를 따라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저의 가정은 기독교 집안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학교와 교회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어릴 적에 다니던 성산 감리교회는 놀이터였고 아지트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이 되었을 때 둘째 이모가 언니와 저에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모는 신학을 하신 분으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이모를 따라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찬양과 기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경배와찬양 헌신자 훈련을 5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도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을 하고, 전도폭발 등의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도 온누리교회 청년부로 옮겨서 하나님의 가정문화부 부서에서 순장과 헬퍼로 열심히 섬기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가정문화부 부서에서 한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고등학교 때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저는 ‘아 저 형제가 나에게 대시를 하면 NO라고 해야지’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서의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 후로 2년 정도 지나서 제주도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도 신청했길래 반갑기는 했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제주도 아웃리치 마지막 날 여행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왔고 그 후 계속 만남의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 감정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멘토이신 이모에게 말씀드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의 남편입니다.

저는 제주도 아웃리치를 가기 1년 전부터 새벽예배를 다니면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첫째 조건이 ‘기독교 집안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의 배우자라는 확신이 있었고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지는 마음과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들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믿고 사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유명하신 박인용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 서빙고 성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생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34살에 시작된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해에 박인용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게 되어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떠나 인천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첫째를 임신했는데 심한 입덧으로 계류유산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월드와이드교회 첫 번째 아웃리치를 가게 되어 저희 부부는 아웃리치 핸드북을 만들고, 중국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다음 해 둘째 희영이 임신 후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희영이가 돌이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주식으로 1억 가까이 날리게 되었는데 남편은 직장에서 중국으로 1년간 출장을 가게 되어 저는 몸도 마음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집도 엘리베이터

부개목장
안은정권사



가 없는 저층아파트로 옮겨 살았습니다. 찬영, 희영이를 1년 가까이 혼자서 키우는 것은 정말 눈물과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후 중국에서 돌아온 남편은 회사가 다른 큰 회사에 팔리게 되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셋째가 생겼습니다. 갖은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박인용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는데 “뭘 어떻게 해? 나야이지.”라고 하였고 사모님께서 “이 아이는 축복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의 태명은 축복입니다. 저희 부부는 찬영이 희영이를 데리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남편은 3일 금식, 저는 임신한 상태여서 하루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직장을 주셨고 몇 년을 다니다가 다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우리 가족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들어가 5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지흠 선교사의 도움으로 사업의 길을 열어 주셔서 지금의 H&P 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 전서 5:16~18)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와~ 미래선도 기술, 대한민국을 그린다

기초과학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기초과학의 저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과학기술 성장을 이룬 경험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해 경쟁 우위를 선점한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성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공위성, 우주시대 열다

국가 공공수요의 위성개발 기술 확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연구개발은 1994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 개발 사업을 의결하면서 시작했다. 국가적으로 위성 영상에 대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9년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위성 1호, 2006년 국내 주도로 아리랑위성 2호를 개발했다. 이후 2012년 아리랑위성 3호, 2013년 아리랑위성 5호, 2015년 아리랑위성 3A호를 개발했다. 현재 고정밀 레이더 위성인 아리랑위성 6호와 최첨단 수준의 정밀 지구관측광학위성인 아리랑위성 7호와 아리랑위성 7A호를 개발 중이다. 또한, 국내 개발 첫 정지궤도위성이자 독자적인 기상 및 해양관측 서비스가 가능한 천리안위성 1호를 개발했으며, 천리안위성 1호보다 더 정밀한 기상관측이 가능한 천리안위성 2A호, 해양관측 및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대기환경 관측이 가능한 천리안위성 2B호를 개발했다. 특히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 주변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가간 갈등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형 및 과학실험용 위성으로는 2003년 과학기술위성 1호, 2013년 나로과학위성, 과학기술위성 3호를 개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개발로 독자적인 위성 개발 기술을 확보하였고 국내 위성 산업화를 목표로 민간 산업체에 위성 기술 이전을 위한 500kg급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2021년 발사했다.

등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형 및 과학실험용 위성으로는 2003년 과학기술위성 1호, 2013년 나로과학위성, 과학기술위성 3호를 개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개발로 독자적인 위성 개발 기술을 확보하였고 국내 위성 산업화를 목표로 민간 산업체에 위성 기술 이전을 위한 500kg급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2021년 발사했다.

인공위성 개발 기술력 세계적 수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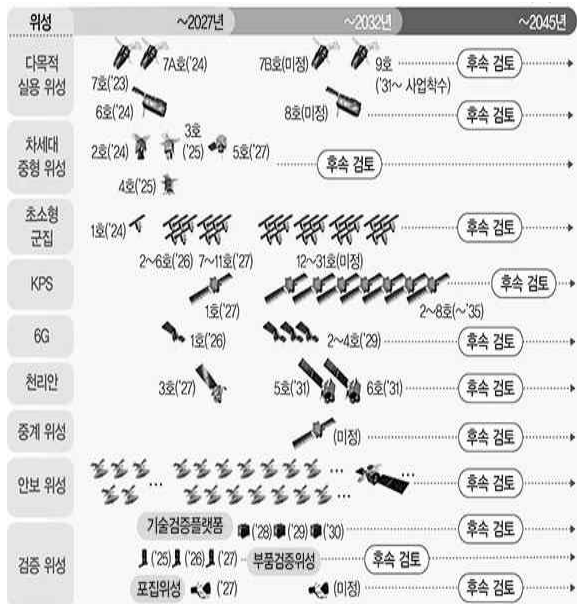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1990년대 중반에서야 국가 주도로 위성 개발을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현재 세계 6~7위권의 인공위성 개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최첨단 수준의 인공위성 설계, 해석, 조립, 시험 기술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국내 위성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성 개발에 필수적인 첨단 위성 시험 시설과 위성 운용 인프라 및 기술, 위성정보 활용 기술 등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인공위성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저궤도 지구관측위성과 정지

궤도 위성 개발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내 위성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산업체에 그동안 축적한 위성개발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산 인공위성' 130개 띄운다

■인공위성 개발 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전도체, 새로운 과학기술

물질은 전기적 성질에 따라 전기가 통하는 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 반도체로 나뉜다. 여기서 초전도체란, 저항이 없는 도체로서 전류가 한 번 흐르기 시작하면 저항 없이 영원히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해당 물질은 영하 200도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만 성질이 발현될 수 있으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과 마이스너 효과가 함께 일어난다. 이는 외부에서 자기

장을 가하면 초전도체 물질이 이를 밀어내는 것으로 자기부상열차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론상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500km로 단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초전도체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과학기술이 넘지 못하고 있는 여러 한계를 쉽게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으므로 발열을 억제할 수 있는 만큼 전력 시스템, 컴퓨터 및 전자기기, AI 산업 등에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지난 7월 국내 민간 연구기업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개발 논문을 공개해 과학계를 놀라게 했다. 세간의 관심을 받는 초전도체는 현재 과학기술을 뛰어넘어 더 큰 과학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초전도체 LK-99가 현재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나라 과학계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초강력레이저, 미래먹거리

최첨단 초강력레이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미래 첨단산업 원천 기술을 선점할 '히든카드'로 주목받는다. 초강력레이저는 핵융합에너지 발전과 차세대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고품질 극자외선(EUV) 광원개발, 미래전자 장치의 게임체인저가 될 레이저무기 개발, 우주항공 산업 등 다양한 응용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찰나의 빛(아토초·100경분의 1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한 물리학자 3인에게 돌아갔다. 과학계는 앞으로도 레이저 분야에서 꾸준히 노벨상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과학계의 이목이 초강력레이저에 쏠리는 이유다. 초강력레이저는 일반적으로 페타와트(1000조 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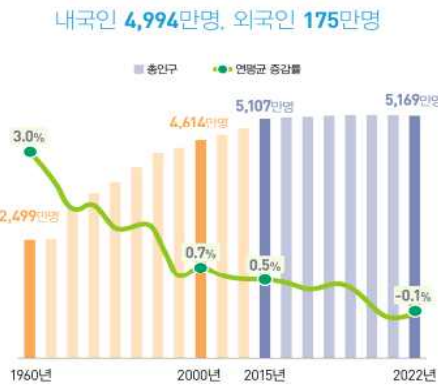
급 이상의 고출력을 가진 레이저를 말한다. 1985년 모로우 교수가 발명한 초펄스 증폭 기술은 레이저 세기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는 이를 활용해 수 페타와트(1000조 와트)까지 레이저 출력이 가능하다. 지구 표면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빛의 출력이 수십 페타와트 정도임을 생각한다면 페타와트 레이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과학계에선 그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한 엑사와트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제타와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빛의 출력과 맞먹을 만큼의 초고출력의 레이저가 가능한 것은 에너지를 마이크로미터(0.001 mm) 크기의 좁은 공간에 집중시킴과 동시에 에너지를 시간적으로도 압축해 펨토초(10~15초)의 극히 짧은 펄스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이저의 에너지가 일정 크

기 이상 커지면 압축에 사용되는 '회절 거울'이 파손된다. 페타와트 레이저를 얻기 위한 회절 거울은 크기가 1m 정도다. 이와 비례해 엑사와트 이상의 레이저를 얻기 위해선 수백 미터 크기의 회절 거울이 필요하다, 사실상 제작이 불가능하다. UNIST 물리학과 허민섭 교수팀, GIST 석희용 교수팀, 영국 스트라스클라이트 대학의 야로스진스키 교수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이 연구는 레이저 핵융합 연구에도 활용 가능해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11월 13일 온라인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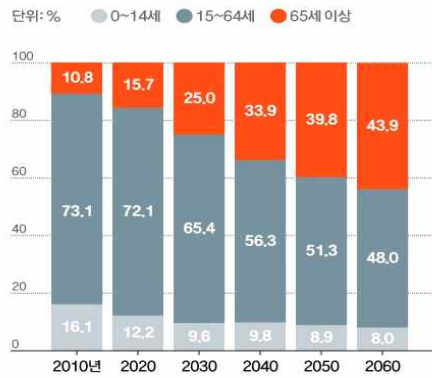
‘인구절벽’, 당신의 상상보다 위험하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60년이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다. 도시가 아닌 지역은 인구 소멸로 교육·의료·편의 기반 붕괴를 걱정해야 하고, 서울·부산·대구 같은 대도시에서도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총인구 및 연평균 증감률, 1960~2022년



연령별 한국 인구 구조변화



연령별 인구,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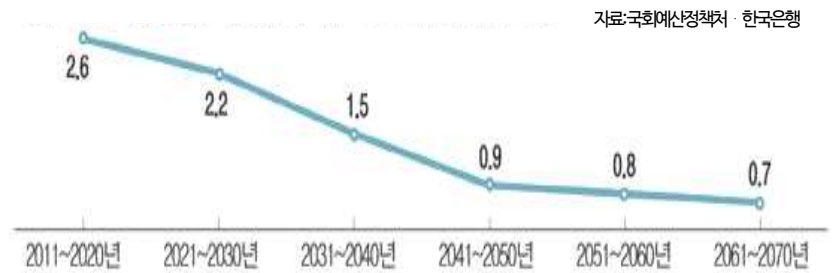


인구 감소 파장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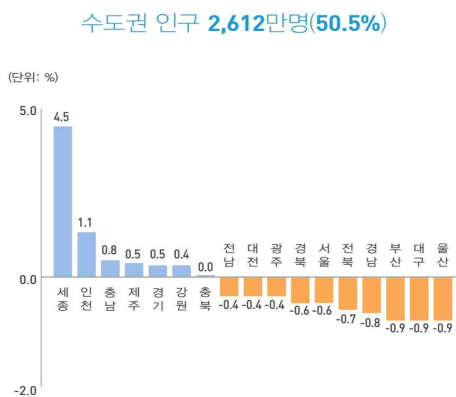


신규 병력자원은 2021년 20세 남성 대비 현역입영자 비율(67.8%)을 적용한 추정치, 학령인구는 6~17세 초·중·고등학생 기준
자료:국회예산정책처·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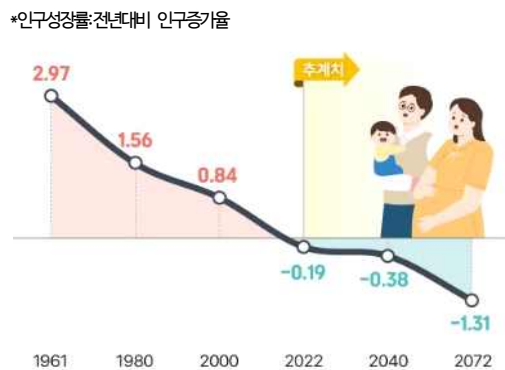
인구 감소 반영한 GDP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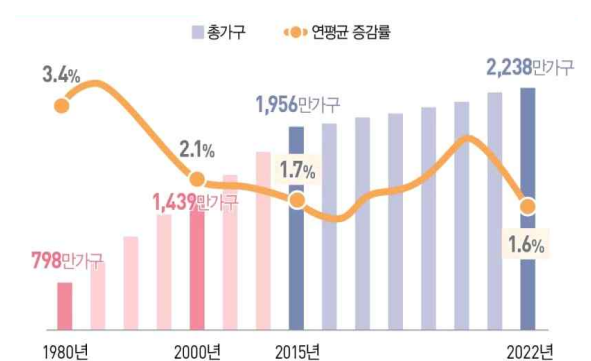
시도별 전년대비 인구 증감률, 2022년



인구성장률 (단위: %)



총가구 및 연평균 증감률, 1980~2022년 (단위: %)



평균 가구원수, 2005~2022

2.25명 전년 대비 -0.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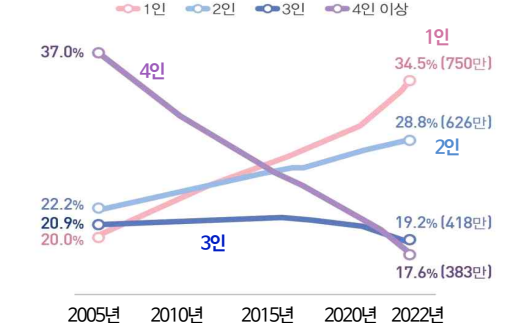
성·연령별 1인가구 구성비, 2022년

1인 가구 750만 가구 일반 가구의 34.5%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비, 2005~2022년

4인 이상 가구 -5.2% 전년대비 -21.0만 가구





경이로운 바다거북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바다거북은 어디서 왔는가?

바다거북은 어디에서 왔을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경험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학의 문제이다. 그 대답은 보지 못한 과거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필요하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자연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 화석기록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며,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역사적인 설명과도 모순된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 6천 년 전에 종류대로 살아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다. 창조론자들은 바다거북들이 창조 다섯째 날에 독특한 바다거북 종류로 창조되었는지, 혹은 창조 여섯째 날에 창조된 거북이의 한 부류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7종의 바다거북들은 별개의 두 과(family)로 구성된다. 바다거북과에는 다수의 다른 종들이 이종 교배되어왔고 잡종을 만든다. 예로서, 붉은바다거북은 켄프각시바다거북, 올리브각시바다거북, 대모거북, 푸른바다거북과 잡종을 만든다. 그들은 서로 번식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같은 종류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인다.

두 바다거북 종들은 잡종을 만드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다.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납작등바다거북과 장수거북과의 유일한 살아있는 종인 장수거북이 그들이자. 그러나 자손을 못 만든다고 해서 두 거북이 서로 다른 종류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에서 부화한 직후 어린 바다거북들은 살아남기 위해 바닷속으로 달려가야만 한다. 바다거북은 생존하는 동안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시련인 것이다.



사실 거북의 특징을 연구한 후에, 창조과학자들은 모든 바다거북이 아마도 단 하나의 종류로 창조된 것의 후손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비록 바

다거북의 모양이나 서식처, 섭식형태가 다양하지만,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은 분명히 그들이 바다거북임을 보여준다.

경이로운 바다거북

바다거북은 뛰어난 수영선수이다. 그들의 강력한 물 갈퀴 같은 지느러미발은 시간 당 1.5~2.3km의 속도로 먼 거리를 수영할 수 있다. 인공위성은 거북이들이 대양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추적해 왔다.

바다거북은 또한 놀라운 잠수부이다. 특히 장수거북은 그들이 좋아하는 고기나 해파리를 찾을 때 수천 피트를 잠수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바다거북이 강력한 수영선수가 되도록 완전한 장비를 주셨다. 납작한 지느러미와 유선형의 몸체를 주목해 보자. 진화는 것처럼 복잡한 설계의 바다거북을 만들 수 없다.

정상적으로는, 그러한 깊이에서는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공기로 채워진 폐는 파열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바다거북은 폐가 붕괴하지 않도록 공기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때 거북은 자신의 적혈구 세포와 근육에 저장해놓은 산소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여, 바다거북은 고농도 적혈구 세포와 다량의 미오그로빈(근육해모글로빈)을 가지고 있고, 근육에서는 산소결합 단백질이 발견된다.

그리고 해수(소금물) 문제도 있다. 만약 그들이 체내의 과도한 소금을 제거하는, 누관(tear ducts)과 매우 비슷한, 눈으로 방출하는 특별한 소금샘(염류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섭취한 소금으로 인해 거북은 죽을 것이다.

암컷 바다거북이 짝 눈물을 흘리는 이유

암컷 거북들은 그들이 알을 낳기 위해 해안에 다다를 때 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금샘에서의 분비작용은 알을 낳기 위해 모래를 파서 둥지를 만들 때 거북이의 눈을 보호한다.

바다거북(sea turtles)의 염분(소금 농도) 문제는 말 그대로 울고 싶을 정도이다. 마실 물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다거북의 순환계가 작동되는 데 필요한 염분에 비해 바닷물에는 너무 많은 염분(NaCl)이 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과도한 소금은 좋지 않다.

물리적으로 주변 바다가 우리 몸의 체액을 끌어당겨 빨아들이는 삼투압에 대항하여, 우리 몸이 적절한 수분을 유지 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상상해 보라. 당

신이 바다거북이라면, 가상의 진화적 행운(자연선택)에 기대지 말고, 실제 구조책을 발명해보라.

바다거북은 일생의 대부분을 짝 바닷물에서 지내는 데, 어떻게 물리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을까? 바다거북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체내의 다양한 미네랄 염의 총 농도가 서식지 염도의 1/2~1/3에 불과하고, 주요 화학 원소들의 농도가 바닷물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바다거북은 다른 많은 바다생물과 마찬가지로, 체내 전해질/수분 화학을 안정시키고, 삼투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되어 장착된 탄력적인 내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삼투압이 완화되지 않아, 바다거북의 체내 염도가 해염치는 해양 환경의 염도와 강제로 같아질 수 있다. 따라서 바다거북이 내부(염도가 낮은) 물이 외부(염도가 높은) 바닷물로 빠져나가기려는 강력한 압력에 저항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탈수(수분 손실)로 인해, 몸은 생리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잠재적 탈수는 낙타, 척왕라도마뱀, 멧토끼와 같은 사막에서 서식하는 동물들도 위험하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바다생물들은 건조한 사막의 생물들처럼 탈수에 의한 사망의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체액은 바다보다 염분이 적기 때문에, 투과성이 있는 모든 신체 표면을 통해 삼투압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분을 잃는 경향이 있으며, 생존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분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바다거북은 바닷물을 마실 때, 섭취하는 과도한 염분을 어떻게 관리할까? 바다거북의 눈에는 여분의 염분을 결막낭으로 배출하는 커다란 염류샘(염류분비선, 소금샘)이 있다.

이 [NaCl-탈염] 샘의 분비물에는 다른 소량의 용해된 염들이 포함된, 농축된 소금 용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분비물은 암컷 바다거북이 알을 낳을 때나 해변에서 일광욕할 때, 많은 양의 “눈물”을 흘리는 경향을 설명한다. 바다거북은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새끼가 처할 확실한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전에 먹었던 물이나 식사와 함께 삼킨 소금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열대 해변에서 알을 낳는 바다거북이 “울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눈의 순환계를 바르기 위한 것처럼, 과도한 소금을 흘리는 것일 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거북처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요 9:10)을 포함하여, 그분의 피조물들이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바닷속 생태계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서식지들을 채우기 위해, 그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창조과학회 제공)



열방의 다이제스트

러시아 전차 돌연 '땅' 자폭... 북한제 불량 포탄 골머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산 포탄과 탄약의 품질이 낮아 러시아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장약포탄을 쏘기 위해 장착하는 화약 불량 등으로 쏘기도 전에 폭발되거나 사거리가 제멋대로인 등 사고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약(곡사포)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5발을 점검한 결과, 포탄 추진제 함량이 제각각이고, 장약 재질이 다르거나 내부에 포함돼야 할 구리선이 빠져 있는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바닥난 러시아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을 채워주는 대가로 위성 발사체 관련 기술을 받는 정황은 최근 보고된다. 백악관은 10월 북한이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길이 6m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혔다.

美, "임신은 여성만 가능" 답했더니 오답처리

미국의 한 고등학교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는 답안이 오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과학적으로 남성이 임신할 방법은 없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사는 '젠더와 성의 이해'라는 주제로 퀴즈 시험 문제를 냈다. 시험은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참·거짓 중 하나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해당 교사는 '오직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다'는 명제에 한 학생이 '참'이라고 답하자 오답 처리했다. 이 학생이 '모든 남성에게는 음경이 있다'는 명제에 '참'이라고 답한 것 역시 오답 처리됐다. 시험을 시행한 교사는 "남성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도 음경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학생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교사들로부터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해당 시험은 인종차별과 가부장제와 같은 권력 시스템의 영향을 조사하는 등 현대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다루는 주 및 지방 지침에 들어맞는다고 했다.

中, 늙어가는 '세계의 공장'..5명 중 1명은 60세 이상

중국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고령화 국가 원인 발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8044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했다. 사실상 5명 중 한 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란 뜻이다. 중국은 20세기 말 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한 이후 고령층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 2600만 명에서 2억 49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 이르러 2억 8000만대까지 올라갔다. 2050년대에 이르러선 노령층 인구 비율이 최대치에 이를 수도 있다.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한 중국은 일찍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에 나선 상태다. 급증하는 고령층 인구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년 연장을 유연화하거나 파트타임 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 식이다.

신차등록 대수 60·70대, 30대 앞질러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최근 10년간 연령별 신차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60~70대의 승용 신차등록 대수는 22만4095대로 이는 30대의 등록 대수(19만5182대)를 크게 넘는 수치다. 30대의 올해 월평균 신차등록 대수가 1만7743대였다는 점에서 12월 수치를 더하더라도 60~70대의 기록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0대보다 60~70대의 신차등록 대수가 많은 것은 최근 10년간 올해가 처음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간 대다수 연령대에서 차량 신규 등록 대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됐던 반면 60~70대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자동차 큰손'으로 떠올랐다. 최근 10년간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60대였다. 60대의 신차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10만1501대에서 지난해 16만1261대로 59% 증가했다. 올해(1~11월)는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18만522대를 기록, 12월 한 달을 집계하지 않고도 2014년 대비 77%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 밖에 50대의 경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평균 29만대의 신차등록 대수를 보이며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고도비만도 현역병으로 군대 간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상 BMI 기준 체중 분류는 저체중(18.4 이하), 정상(18.5~24.9, 과체중(25~29.9), 비만(30~34.9), 고도비만 (35~39.9), 초고도 비만(40 이상)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

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BMI 35~39.9)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과 50.5% "교차지원 고려"... 문과 어디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가운데, 종로학원에서 수능 성적통지표가 나온 12월 8일과 9일 수험생 20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탐구영역 중 과학탐구에 응시한 수험생 중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5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표준점수 등으로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는 '문과 침공' 현상이 올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한 설문에서는 46.6%가 교차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3.9%p 올랐다. 정시 모집 지원 시 대입 재도전을 고려하는 수험생도 40%로 파악됐다. 정시모집 지원 시 고려하는 전략으로는 상향지원이 38.7%, 적정지원이 43.3%, 하향지원이 18.0%였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거래장소는 지하철로 나타났다. 당근은 이용자의 '거래 희망 장소'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대부분 이용자는 생활권 내 공공장소를 선호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 안전하고 이동이 편리한 지하철역을 선택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위 아파트(24%), 3위 편의점(10%), 4위 학교, 5위 마트, 6위 공원 순이었다. 당근은 이용자에게 공공건

물 및 시설을 통한 대면 거래를 장려해왔다. 실제 선택받은 거래 장소로는 강남역 10번 출구, ○○동 주민센터 앞, ○○아파트 정문, ○○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의점 등이 많았다. '거래 희망 장소' 기능은 동네 이웃 간 더욱 편리한 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중고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거래 희망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준다. 채팅을 통해 거래장소를 일일이 묻고 답하지 않아도 된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겨울철, 호흡기전염병을 잡아라

어린이 폐렴의 원인 중 하나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늘고 있다.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1~12세)이 입원 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어 소아와 학령기 아동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코로나19 봉쇄를 풀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에서 현재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어린이들 사이에 급증하고 있어 주요 도시의 소아과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도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로 12살 이하 소아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218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 환자는 11월 첫째 주 173명에서 넷째 주 270명으로 4주간 1.6배 증가했다. 환자는 대부분 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1~6세 37%, 7~12세 46.7%로,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어린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에게 비상’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란,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성질을 띠는 병원체인 마이코플라스마 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질환이다. 2011년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이다.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3~7년 주기의 유행을 하는 폐렴으로 특히 소아 연령에서 특징적인 대유행이 발생하는 편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출현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과 2015년, 2019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대유행하였다.

■**주요 증상**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콧물, 인후통이 나타나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하며 보통 증상이 3~4주간 지속하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호흡기 외 증상으로는 피부발진이나 위장관 증상,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재채기나 코막힘, 천명음(쌽쌽거리는 소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1차 항생제인 마크로라이드에 내성이 있는 균주가 2011년 이후 우세종이 되었다. 해외에서는 소아 환자에게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2차 항생제로 테트라사이클린제와 퀴놀론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당 약제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소아 연령 금기 약물로 지정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다. 테트라사이클린은 치아 착색, 법랑질(치아 맨위 하얀 부분) 형성 부전, 일과성 골발육 부전과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 12세 미

만에게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퀴놀론제는 하지에서 아킬레스건, 상지에서는 어깨 및 손의 건염 및 건파열과 같은 관절병증, 뼈연골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18세 이하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감염경로** 환자가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된다. 주로 같이 동거하는 가족,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기숙사, 군부대 등 집단 시설일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준수, 실내에서 자주 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항생제 복용** 마이코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는 세균이고 그 세균이 일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 수가 있으므로 몸이 건강해졌음에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을 때 충분한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불충분하게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증상이 모두 나았다고 했을 경우에도 정해진 치료 기간만큼 충분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기간을 써서 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내성균의 발현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일반 감기와와의 차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일반 감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증상이다. 일반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고 콧물이 먼저 나고 기침이 있는 3~4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반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세균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감기가 통상 1주일 정도 증상 지속된다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그 3배인 3주간 증상이 지속된다. 기침이나 가래 증상이 심하고 발열이나 오한 인후통이 심하다. 이런 증상은 독감과도 비슷하지만, 진찰하면 숨소리부터 다르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청진을 했을 때 폐음이 좋지 않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처방받은 항생제 등 약물을 복용하면 대부분 호전된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후에도 증상이 악화하거나 호흡곤란, 청색증,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을 찾아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폐렴, 겨울철 집중 발생

호흡기 감염의 연간 추세를 보면 병원체 종류마다 특정한 계절에 환자가 많아지는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와 같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들이 있다. 이 바이러스 감염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폐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1.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한다.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린다.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4. 증상이 나타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한다.
5. 하루에 3회, 매회 10분 이상 실내를 자주 환기한다.
6. 환자와 수건, 물컵 등 개인용품을 구분해 사용한다.
7.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



폐렴 예방에 좋은 음식

■**모과** 알칼리성 식품인 모과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갈슘, 갈륨, 철분 등이 많이 들어 있어 감기나 폐렴 등으로 기침을 심하게 할 때 효과적이다. 특히 통증과 염증을 완화해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멈춰주기도 한다.

■**배** 배는 예로부터 기침, 천식 등에 약재로도 사용됐다. 목이나 기관지에 좋고 소화를 촉진하며 해독 작용을 한다. 폐와 기관지 건강에 좋은 케르세틴 성분도 들어 있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케르세틴이 염증 수치인 CRP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라지** 도라지에 들어 있는 사포닌은 가래를 삭이고 기관지의 점액분비를 촉진시켜 세균으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 만성 기관지염이나 인후염 편도선염에 좋고 천식에도 좋다.

■**수세미** 수세미는 사포닌이 풍부해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진정시켜주며 염증을 가라앉혀 기관지 질환에 효능을 보인다. 수세미의 찬 성질은 폐의 열을 가라앉혀 췌서 기관지염이나 후두염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침을 줄여준다.

■**감** 감의 열을 식히고 폐를 보호해 주며 콧감 표면의 흰 가루는 진해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으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있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 먹으면 더욱 좋다. 감에는 항산화 작용과 항암에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므로 폐암 예방에 좋다.

■**동글레** 농촌진흥청은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동글레는 몸 안의 진액을 보충하고 건조해진 것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마른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곁에 스며온 이단,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단에 포섭된 이가 약 200여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 90%인 180만 명이 기독교인 출신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800여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의 25%가 되는 숫자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4명 중 1명은 이단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이단의 세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 이단과 사이비 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기 바란다.

1. 통일교

국내 최대 규모의 이단인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문선명이 창시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설된 신흥종교이다. 창시자였던 문선명이 2012년 사망한 뒤, 부인인 한학자가 총재로서 교단을 이끌고 있다. 한학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 ‘독생녀’로 내세워 통일교를 장악하며, 최근에는 ‘하늘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츠 처치(Heavenly Parents Church)’로 명칭을 변경했다.

2. 기독교복음선교회(JMS)

1978년 정명석이 창설한 대한민국 개신교 계통 신흥종교인 기독교복음선교회는 통일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JMS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명석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재림주이며, 구세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위장교회, 위장 문화센터, 위장 동아리 등으로 포교한다. 춤, 스포츠, 모델, 음악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학가는 JMS의 주요 활동무대이고, 위장 동아리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접근하고 있기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수교대한감리회 진리측’이라는 교단명을 사용하며, 교회 이름은 보통의 교회 이름과 같기에 늘 배경까지 검증해야 한다. <섭리세계>, <조은소리> 등의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3. 신천지

1984년 이만희가 창설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로 신천지의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다. 주로 ‘신천지’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이만희를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한다. 1990년대 초부터 산하 교육기관인 ‘무료성경신학원’을 앞세워 “성경의 모든 것을 3~6개월 만에 무료로 가르쳐 준다”면서 왜곡된 성경해석으로 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성경 지식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접근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비유로 성경을 풀어서 ‘선민적 우월의식’을 갖도록 만든다. 그로 인해 기성교회를 이탈하게 하고, 잘못된 성경관을 갖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신천지의 포교방법에는 기성교회 성도 포교 외에도 기도원과 교회 집회 전도방법, 신학생과 대학생 전도방법, 열차나 버스, 전철 내 전도방법, 노방전도, 좌판 전도방법, 일가친척과 친구 전도방법, 직장 전도방법 등이 있다. 요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청년들을 포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는 당근마켓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서도 손을 뻗치고 있다.

4.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 교회)

사망한 안상홍을 하나님,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와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 이단 단체다. 안상홍 교주는 ‘안식교’의 영향을 받았고, 본부는 분당에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다. 대표적인 단체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구 새생명복지회, 명예회장 장길자)다. 봉사활동은 환경보호, 아동과 노인복지, 자원봉사, 구호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교회가 심각한 이단이 아닌 유명 사회봉사 단체로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2인이 짝을 지어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설문조사 등의 포교를 한다.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하늘 어머니도 있지 않겠냐며 안상홍과 장길자를 성경 이상의 구원자라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어머니 사진전’ 등을 통해 포교하고 있다. 특히 30~40대의 여성들이 신자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학부모 관계를 통한 포교도 많이 하고 있다.

5. 구원파

분류	권신찬(유병언)	이요한	박옥수
교단명칭	기독교복음침례회	대한예수교침례회	
유관기관	생명의말씀선교회	기쁜소식선교회	국제청소년연합(IYF)
본부격 교회	서울 삼각지 서울교회	경기도 인양 서울중앙교회	기쁜소식 강남교회

구원관: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 구원
회개관: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
칭의와 성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정통교회의 제도(장로, 집사)와 예배형식,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를 무시한다.

6.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한때 기성교회 목사)는 1990년 10월 이단성의 문제로 예수교대한성결교단에서 제명처분 당한 후 1998년 8월 신이 자신의 교회에 임재한다고 하여 교계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만민중앙교회와 만민기도원을 중심으로 이재록 목사는 직통계시를 앞세워 자신이 신유의 은사, 물질의 축복 등의 권능이 있다고 교인들에게 인식시켰다. 1998년 1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를 사이비로 규정하였다.

7. 여호와의 증인

1872년 미국의 성서학자 찰스 테이즈 러셀이 ‘국제성서연구자협회’를 설립하면서 발생한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이다. 정통 기독교가 믿는 주요 교리들을 대부분 부정한다. 예수를 피조물로 보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부활해 지상낙원을 통치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 체제를 사탄으로 보고, 국가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를 거부하며, 의무교육과 국가 공무원이 되는 일도 거부한다. 공공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병역의무도 기피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수혈 거부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가가호호 방

문하며 포교하며 주로 <파수대>와 <깨어라!> 등의 잡지를 나눠주며 기독교인들을 미혹한다.

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안식교의 창교자는 윌리엄 밀러, 엘렌 화이트다. 윌리엄 밀러는 1843년과 1844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추종자들은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따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를 선지자로 부르며, 그녀가 받은 계시를 성경의 권위에 견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 준수 여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문제점으로는 종말론과 관련해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성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삼육’이란 이름이 주로 들어간 다양한 사회기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외국어)교육과 식품사업(삼육두유) 등 안식교 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그들의 활동을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9. 몰몬교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에 의해 1830년 미국에서 설립됐다. 주요 교리서는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까지 4개의 경전이 존재한다. 몰몬교회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며 모든 인간은 하늘의 부모에게서 받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창조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고, 타락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몰몬교회에서 거행되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만 지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믿는다. 포교 방법은 두 명씩 짝지어 다니는 20대 초반의 몰몬교 선교사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접근한다.

이단, 사이비, 이단성의 정의

이단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첫째 성경을 왜곡하고, 둘째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집단을 말한다.
사이비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사이비는 신학적으로는 이단적인 사상의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 영역에서는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집단들을 지칭한다.
이단성	이단적 사이비적 요소가 많아 ‘정도의 측면’에서 사용할 경우 이단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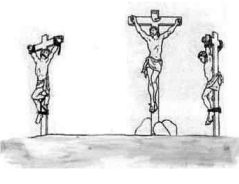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11		10		
				16			12		12
2			2						
			15				13		
	3					14			
4									
					8			6	
5		5		7				10	
						9			
		6							

가로문제

- 한 해의 마지막 무렵에 그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서로 나누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갖는 모임
-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돈을 외국 돈이나 소액권 또는 동전 따위로 바꾸어 주는 곳
- 육십갑자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나이를 이르는 말. 또는 나이가 같은 사람
- 사람의 출입이 잦은 건물의 출입구에 보온을 위해 설치한, 축을 중심으로 빙빙 돌려서 드나들게 만든 문
- 높은 온도로 몸을 덥게 하여 땀을 내기 위해 갖춘 시설
-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움
-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무릎과 발목 사이의 뒤쪽 근육 부분
- 선거 또는 어떤 안건의 가부를 결정할 때, 일정한 표에 의사를 표시하여 지정된 곳에 냄
- 운동 경기 따위에서, 마지막으로 승부를 가리는 시합
-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서로 다툼 만한 중요한 사항이 됨
- 싸움에 진 군대의 병사 가운데 살아남은 병사
-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치우고 없애 깨끗이 함
- 사리를 분별할 만한 힘이 없는 어린아이
- 말이나 일의 내용에서 중심이 되는 즐거움을 이루는 것

세로문제

- 원유나 정유, 천연가스 따위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시설한 관
- 철광석을 제련해 철을 만드는 곳
- 육십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나이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모교와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
- 어떤 일에 전문적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사람
-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유한 언어
-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리기 위해 치는 천 따위의 물건
- 아이들이 재미로 놀이함
-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
-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행하는 싸움

-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 유리병 속에 휘발유나 화염제 따위를 넣어 만든 일종의 간이 수류탄
- 소송에서 짐

<지난 12월호 정답입니다>

이	상	기	후			산	전	수	전
력			유		명	맥			망
서	점		중	인			계	양	대
	입			내	장		시		
작	가		방	심		자	판	기	
	경	매				투		지	
		표		모	서	리		개	입
보	건	소		바					회
조			생	일			기	념	비
개	과	천	선			자	양	분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세이레기도회 ■ 11월 26일~12월 16일

“열린 축복문의 주인공이 되라!”



박인용 담임목사



소유정 전도사



국제사역팀 축복기도



유년부/초등부 안내

순종강축제 ■ 12월 17일



중등부-임하나



삼산2목장·노가영자매 간증



선물 추천

교회 행사



교회 18주년 기념



장학금 전달식



주일 전도

차세대



유년부-생일잔치



영아부-오감놀이



유치부-공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도리를 소망합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가 심하던 시기에 다니던 회사에서 인천 부근 쪽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인천 쪽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교회는 거리가 멀어져서 집과 가까운 부근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매우 심해서 다시 교회 나가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은혜가 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코로나가 사그라질 즈음에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다녀야 할지 몰라 아내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내의 친구 남편이 월드와이드교회를 다녀 보라고 권면하여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월드와이드교회를 왔을 때는

예배를 드리며 분위기를 보고 다닐지, 다른 교회를 갈지 결정하자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다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대일 양육을 해주신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던 중 다리를 다쳐서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고 장로님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교육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담임 목사님과 부평목장에서 우리 집에 심방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저와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가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다친 다리는 빨리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교

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회복되고 다시 교회 가서 새 가족부 교육이 거의 끝날 즈음에 장로님이 일대일 제자 양육반 10주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예배가 무너진 나에게 과연 내가 10주간의 교육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양육반 첫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 배우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속제로 말씀 통독과 큐티와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면서 매주 제자 양육 교육이 진행될 때마다 지친 나의 삶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대일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



부평목장
임종대형제

은 내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10주차 교육을 통해 배운 것처럼 형식적으로 단순히 예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애,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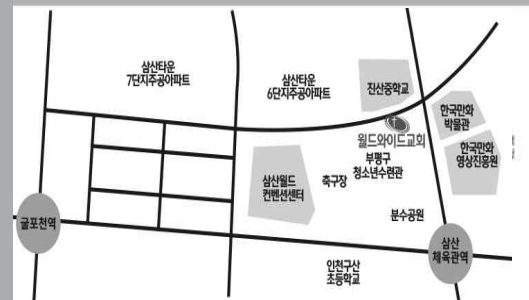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v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본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본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본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본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본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주일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2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2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사역	고등부	오전 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블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 2134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 501-9686 ~ 7
- Fax: 032) 503-9686
- <http://www.wvch.or.kr>

2024 신년축복성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 시편 3:8

2023.1.1(월)-4(목)

매일 저녁 8시 / 본당

블레싱메신저 : 박인용목사 (월드와이드교회 담임)

제 16회 중보제자학교

제16회 중보제자학교



강사 : 박인용 목사

박인용목사는 온누리에서
지성소기도학교의 개념을
성경으로 처음 적용,
새로운 성경해석과 기도예로의
적용으로 기도의 돌풍을 일으킨 바로 그 주제

지성소의 영광으로 들어가라



2024.1.9(화) ~ 2.13(화)

(매주 화요일 6주) 오전 10:15-오후1:30

대상 : 각 임직자 가운데 이 과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 필수, 임직자 후보분들 필수, 지성소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성도

회비 : 2만원 (간식대) * 교재는 무상제공합니다.

등록 및 문의 : 팀장 - 안병숙 권사 (010-3015-9585) / 동선화 전도사 (010-9908-4138)